

글로벌 사회공헌단 인터뷰 – 김성환 단장

학내기관탐방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
헌단이 발족된 취지에 대해
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단은 전임 오연찬 총
장께서 만드셨고, 저는 그 초대
단장을 맡았습니다. 서울대 학생
들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그것을
기부하는 것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서 기부, 봉사 활동을 증진시
키자는 일종의 반성이고, 필요에
서 출발되었습니다. 저의 모교이
기도 하고, 오 전총장님의 취지에
동감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에서도 학생에게 사회봉사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과목을 듣는 학생
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서울대 전체를 봤을 때 사
회에 대한 봉사나 기부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 하면 공부 잘하
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앞으로는 인성 좋고 사회에 기부도 열심히 하는 집단으로 인
식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 ● ●
이 희 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저는 단순히 사회공헌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장님 뵙기 전 자료를 찾아보니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활동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서울대도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과대학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 학생들이 community building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베트남의 아주 변방지역,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올해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단과대학으로 하던 것을 여러 학내 단체가 함께 연계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나아가 그 나라에 가서 교육을 해 주고, 또 그 나라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는 등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외교부통상부 산하의 코이카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다르게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서울대학은 자원이 무궁무진한 곳이라서 이런 자원을 동원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생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학생 개인 차원의 봉사를 넘어 대학수준에서 국제 협력이나 봉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어차피 서울대학 사회공헌단이니까요. 대학차원에서 하려니까 학생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건물에 작년 9월에 입주하고 정규예산을 받은 것이 금년이 첫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서울대 내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농촌봉사팀도 7~8팀이 되는 것 같고, 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부터 진도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마 5차례 봉사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봉사단이라고 하면 해외봉사만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열정을 갖는 부분이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같은 국내 봉사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에 환원하여 다시 키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해외대학에서 우리와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캄보디아 교수님들이 같이 오셔서 대학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조직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서울대학 학내에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고마운 것은 이미 봉사동아리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건물 1층에 카페를 만들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공헌단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바랍니다. 현재 방학 봉사활동들이 대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면 사회봉사를 한 사람이 취업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대 출신들은 너무 자기 앞가림만 한다, 능력은 충출한데 리더로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봉사하는 부분은 다소 약하다는 평가가 많고, 사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복지도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60%가 온 인류가 어떻게 잘 살것인가와 관련된 글로벌 이슈, 즉 기후 변화나 개발 협력 등을 일상적으로 논의 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은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빌게이츠도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다 환원하기 때문에 칭송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의료 등에 관해서도 공적개발 기금을 제외하면 민간단체 중에서는 빌게이츠 재단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그런 면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고, 서울대가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교부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학교로 돌아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영광스럽죠. 갑자기 와서 교수님 소리를 들으니까... 농담으로 교수님들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국제대학원에서 개발협력, 인권,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이슈'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저는 유엔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여성 문제 특히 교육 문제나 아랍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려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사회도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학생들의 참여와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와서 보니 사회봉사 교과목도 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굉장히 반갑구요. 서울대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리가 잡힐 듯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제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CTL과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학생들이 많이 느끼야 하기 때문에 교육 플러스 실천이 중요합니다. 봉사를 스스로 해보면 보람이 느끼게 되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회봉사가 서울대 전 구성원에게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생각을 갖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본인이 느끼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직원들의 열정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TL도 2001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수, 학습이나 수업평가 등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이 않았습니다. 강의평가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문항으로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